

동지同志

2

동지

• 일산 '그림마을'

▶ '스튜디오 365'
30~40대 9인의 창작산실
넓고 값싼 작업공간 매력

▶ '구산동 스튜디오'
문만 열면 푸근한 산과 강
전업작가 모여 작품 몰두



'스튜디오 365'팀. 왼쪽부터 홍성도·송지연·이지은·최기석·허상림·허정·김흥모·이수홍·이형우씨. 사진 김영민기자



'구산동 스튜디오'팀. 임호·김진수·이정희·강성욱·김정범·박동엽·권석만·김건주씨(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고양시 일산은 서울 인사동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림의 거리' 인사동에서는 가까운 곳이지만 전원생활을 할 수 있다. 너무 지겨워 서울을 탈출하거나 생활이 궁핍하여 서울에서 쫓겨난 예인들이 끼리끼리 모여산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 예인촌 식구들은 자꾸 늘어나고 있다. 정확히 파악은 안되지만 일산 일대에서 창작을 하는 화가는 3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컴하다고 하삼림씨가 얘기한다. 그래서 화가들의 새벽은 감미롭다. 이제 '스튜디오 365'는 꽤 유명해졌다. 2000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동안엔 관광 코스로 선정돼 외국작가들이 줄지어 작업실을 다녀갔다. 르네 블록 독일 카셀미술관장도 이곳을 방문하는 등 이제 명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럴수록 이곳의 작가들은 명성에 걸맞은 작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압박관념에 시달린다. 이들이 이곳에 동지를 튼 이후 좋은 소식이 잇달았다. '365' 대표 이형우씨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초대작가로 지명되었고, 최기석씨는 대학강단에 서게 됐다.

일산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촌은 '스튜디오 365'와 '구산동 스튜디오'다. '스튜디오 365'(이하 '365') 입주작가들은 작업실을 나란히 마련하고 그곳에서 창작의 산고와 희열을 함께 나누고 있다. '1년 365일, 날마다 깨어있자'는 뜻에서 작업실을 '365'라고 명명했다. 자유로를 타고 가다 일산 농수산물센터 진입로로 빠진 후 금촌 쪽으로 가다 보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있는 9채의 작업실이 나타난다. 언뜻 보면 가내공장 같기도 하고 커다란 알이 모여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작가마다 독특하게 연출한 개성있는 공간이 펼쳐진다.

이곳에 동지를 틀기까지 애지 거리가 많다. 넓고 값싼 작업공간을 찾아 발품을 팔던 '365' 작가들은 원래 다른 곳을 전적였다고 한다. 하지만 계약일에 오겠다는 땅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북덕방 주인은 자신의 땅(1,460평)을 내놓았는데 그 땅이 지금의 '365'터이다. 막상 공사를 시작하자 주민들이 웬 환경이들이 몰려오나며 차량 진입을 막기도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마을의 명소로 주민들의 자랑거리가 되었다고.

1998년 이형우(홍익대 조소과 교수), 최기석(경기대 미술학부 조각과 교수)·허상림 부부, 이수홍(홍익대 조소과 교수), 홍성도(홍익대 조소과 교수), 이지은(동양화가·이화여대 동양화과 강사), 김흥모(서양화가), 허정(서양화가)씨가 입주했고 지난 3월 입주자회의에서 허가를 받아 30대 중반의 막내 송지연씨(서양화가)가 합류했다.

최·하씨 부부는 입주 당시 고민이 많았다. 최씨의 작업실이 지자마자 점점 하쪽으로 기울어갈 때

연을 곁에 두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지요". 뉴욕 소호에 위치한 보르파(Vorpar)화랑 전속화가인 김흥모씨의 의견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로 생겨났고 이제는 모여서 촌(村)을 이루게 됐다. 거주작가는 동양화가 임호·유시욱씨, 서양화가 김근태·윤익한·박금숙씨, 도예가 박동엽·성미경씨, 설치작가 홍성담·김정범·전신택·이승오씨, 조각가 김병걸·심은하·오기석·손권일·김진수·이미호씨 등 30~40대 작가들이다. 이들의 작업실은 대부분 논두렁 옆에 있다.

"문만 열면 산과 논이 방안으로 들어옵니다. 흙냄새를 맡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또 작가들끼리 눈 맞고 시간 맞으면 술과 간단한 안주로도 밤을 지새드립니다". 임호씨(46)는 용접기구와 철구조물이 가득한 조각가의 작업실도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이면 그저 훌륭한 주점이며 정겨운 공간으로 변한다고 했다.

그는 "대부분 유럽과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의욕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을 나누며 믿고 의지하는 것이 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에게 자극을 줍니다. 이것이 이곳에 사는 가장 큰 이유이지요". 영감을 불러넣는 '창작의 터'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작품이란 생각이 들었다.

무려런 무이 자가들은 며칠 전 2차선에서 6차선